

작년 인구 증가 8000명에 불과...올해 첫 '자연감소' 전망

전년 대비 71.7%(2만명) 감소...통계작성 시작 이래 최저 수치

2년 연속 0명대 합계출산율...30년후 출생아 '절반' 수준까지 ↓

지난해 인구가 8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연간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0명대로 떨어진 가운데 정부는 이 같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올해 '인구 자연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자연증가는 8000명으로 전년 대비 71.7%(2만명) 감소했다. 1970년 통계작성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인구 자연증가가 감소는 사망자 수보다 출생아 수의 감소 폭이 더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3100명으

로 전년대비 2만3700명(7.3%)이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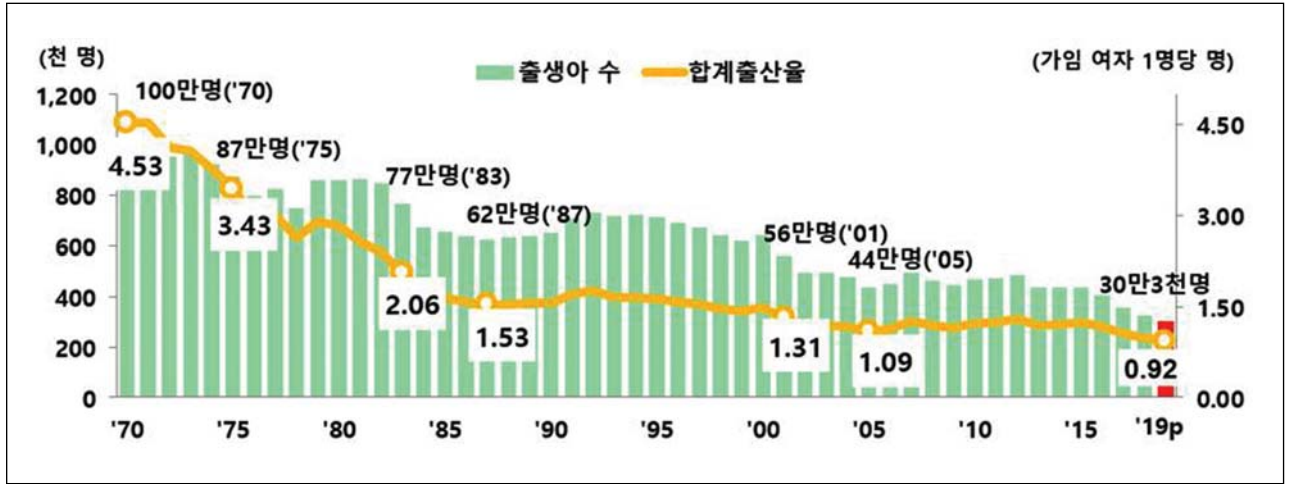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0.92명으로 전년대비 0.06명(5.9%) 감소하며 '인구 자연증가'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우리나라는 2018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0명대를 기록했다.

아직 다른 나라의 지난해 인구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으로 합계출산율 1.3명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포르투갈, 폴란드 정도다.

정부는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첫 '인구 자연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에 미치지 못하면서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인구 자연증가분은 사실상 0에 가까운 숫자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추세를 보면 30년 후 출생아 수가 절반 정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산부 3명 중 1명 '고령산모'...평균 출산연령 33세

통계청,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첫 출산 늦어지면서 첫째만 낳고 둘째 안낳아

임산부 3명 중 1명은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을 늦춰면서 산모의 나이도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 첫 출산이 늦어지면서 첫째만 낳고 둘째를 낳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고령산모의 증가가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 산모 가운데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3.3%로 전년 31.8%보다 1.5%포인트(p) 증가했다.

고령 산모 비중은 2009년 15.4%에 불과했으나 10년새 2배를 훌쩍 뛰어 넘었다.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도 지난해 33세로 전년 32.8세보다 0.2세 상승했다. 첫째아 출산연령은 32.2세

이며 둘째아는 33.8세로 나타났다. 셋째아 출산연령은 35.2세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 출생아 수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감소했다. 특히 주 출산연령인 30~34세 산모가 낳은 출생아 수는 13만1500명으로 전년대비 1만1600명 감소했으며 25~29세 산모의 출생아 수도 같은 기간 7100명 줄었다. 반면 40~44세

산모가 낳은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800명 증가했다.

이처럼 산모의 출산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혼인이 늦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자의 초혼 연령은 2015년 30.0세에서 지난해 32.2세로 4년만에 1세 증가했다.

결국 이같은 늦은 혼인과 고령

산모의 증가는 저출산 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생아 수 감소는 혼인과 출산을 지연하는 추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결혼을 늦게 해서 첫째아이를 늦게 낳는다는 것은 둘째아이나 셋째아 출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2년 연속 0명대 출산율... "심각한 저출산에 인구절벽 우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0명대를 기록했다. 0명대 출산율이 굳어지면서 인구가 단기간에 크게 줄어 국가 존립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3100명으로 전년(32만6800명)보다 2만3700명(7.3%)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도 0.92명을 기록, 전년(0.98명)보다 0.06명(-5.9%)이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합계출산율 0.92명...세종 1.47명 전남 1.24명

사망자 2013년 이후 첫 감소 "2018년 기저효과"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2018년 통계 작성 최초로 합계출산율 0명대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粗) 출생률도 1년전보다 0.5명이 감소한 5.9명으로 집계돼 사상 최저를 나타냈다.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는 첫째아가 16만8700명이었고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이 각각 10만8600명, 2만5700명으로 집계됐다. 모든 출산 순위에서 출생아 수가 감소한 가운데

특히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에서 감소폭이 컸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세종(1.47명), 전남(1.24명), 제주(1.15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0.72명), 부산(0.83명)의 출산율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강원을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충북(-10.2%), 부산(-7.9%), 대전(-7.1%) 순으로 컸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29만5100명으로 전년대비 3700명(-1.2%) 감소하면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줄

었다. 그 결과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粗)사망률도 5.7명으로 전년보다 0.1명(-1.3%) 감소했다.

지난해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과 관련, 통계청은 "2018년 사망자 수사망률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별 사망률은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주로 감소했다. 1~9세에서 0.1명으로 가장 낮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90세 이상은 183.0명을 나타냈다.

월별 사망자 수는 1월(9.3%), 12월(9.1%) 등 겨울철이 많았지만 전년 대비로는 2018년과 같은 한파가 없었던 1월(-13.3%)과 2월(-8.3%)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